

을 가져오. 것이요 또한 자칫하면 남에게 不快를 끼친기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학마음이 열마음과 다름바 또한 없으려니와 나는 나의 이手記의 祭壇 위에 구태 누구의 像龕도 모시지 안호련다.

나는 가장가까워야 할 나와 너무 멀었고 가장 알아야 할 나를 너무 몰랐다. 이語句는 그처럼 神秘하고 高尚한哲理을 意味한것은 아니다. 다만 너무沒却하고 無關心하고 等閒視한 自身에대한 不絶한 反省의 機會만을 提供하는것으로 足라 할것이다. 그러나 이 한 어면 倫理的意識이 아니요 心理的意識에만 끝나는지도 모른다.

이것은 好奇心이다. 나는 이제 조그마한 또는 크다란 探險의 길에 오른다. 어떤것이 내 눈에 보이고 내발에 밟히고 내손에 쥐일는지 모르며 그저 淡然한 期待만을 가질뿐이다. 獅子와 黑人과 湖風만이 사는 荒蕪한沙漠도 지낼것이다. 저는 새벽 단빛아래 잔나비울고 陰凶한 猛獸의 발자취소리 에 山靈조차 스산해할 숲도 지낼것이다. 有時로는 孤獨과 悔恨에 쓰러질때 藐姑射山의 神人을 맞나 氷雪같은 肌膚를 어루만질수도 있겠거니 困苦와 渴欲에 顛倒일때는 별빛 더러져

秋夜默想

金 四 祚

兄! 前番 奉天에서 주신편지는 반가히바다 보았읍니다. 이렷케 쓸々한 鄉村에서 孤獨과 焦燥와 煩惱으로사라가는 저의게 있어서 南北이 落々한 兪異域에서 萬感의 腦中으로 이江山을 떠나신 兄이 情다히 보내주시는 글월을 받을때마다 열마나 반가워하는지 모릅니다. 孤獨과 焦燥에싸힌 이神經이 열마나 慰安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兄! 저는 及也兄의 慰安해주시는 보람도 없이한 病者가 되고 마랐읍니다. 그病이 무슨病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구라여 그 누구의게라도 말하고 싶지도 않읍니다. 말을 할내야 할 수도 없읍니다. 오죽 병어리 병가슴알듯 우황든소 처림 저홀로알게되고 저홀로 피로워 할뿐이옵시다. 人世苦海! 人生煩惱! 라하였다면 저는 이

있는 緣陰속의 오아씨스도 맞날것이다. 사람은 自己를 숨기려는 反面에 自己를 自慢自惚하는 傾向도 삼가하여야 할것으로되 己를 突然히 過少貶斥하고 自卑하고 賤視하는 버릇도 注意하여야 하리로다. 그것은 흔히 謙遜아닌 謙遜을 內容하고 있는것이로다. 우리는 저어도 우리의 慾望의 運動場을 自己에게 가장 近接한 最少範圍안에 局限하여야 하고 거기에서 우리는 自己 혼자 自己를 줄기고 하는 忠實을 배워야 할것이다.

自己的 無能을 느끼고 自己의 不足을 發見할때 慨歎만이 能手가 아니요 厭惡自棄만이 對策이 아닐것이다. 相對者의 侮辱에 對한 善한 報應은 항상 激怒를 잊어야 하는것이니 自己에게 또한 冷靜을 지켜야 하는것이니라.

우리의 精神이란 항상 外界의 接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볼라 제마음대로 차오고 내려 그것을 膨大시키고 過重히하여 스스로 그重荷에 呻吟하는 버릇이 있는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차라리 愚鈍하기때문에 事物을 半分밖에 보지 못하는 精神을 기정기에 그마음 有善한 事物에 傷害를 받지안는 幸福도 享有할수있으리로다. (말)

病으로 이렷케 피로워도해보고 슬피도해보는것이 오히려 嘖々할일이라고生覺합니다. 또한 저는 이病으로因하여 無限光明을 가져볼수도 있는 것인가요 어찌 이러한病을차버리고 단하로 인들 坎々한地獄世界에서 살수있겠읍니까 아마 이病이 사라지는날에는 저의生도 사라지는날이 될는지도 모르겠읍니다. 兄! 저가 至今居處하고있는 病室은 南向인데 東便으로는 窓門이있읍니다. 그窓門을 열고파라보면 叢株의老松들이連해있는 풀언덕(草岸)이보입니다. 至수는 그언덕의풀들이 爽々한가을바람에 半靑半黃의悲哀의秋色이 靚었읍니다. 兄! 저는 어찌나 그이름모를病이 저의神經을 피로게할때는 窓門을열어제치고 저적은풀언덕